

# “강원-경기도 상생협력”... 두 바퀴로 DMZ 달린다

‘2018 Tour de DMZ’ 내일 팡파르  
철원~연철 공설운동장 56km 달려  
전국 자전거 동호인 등 2000명 참가

강원도와 경기도의 비무장지대(DMZ)를 자  
전거로 달리는 ‘2018 Tour de DMZ(투르 드 디  
엠지)’가 26일 오전 10시 강원 철원 공설운동장  
에서 시작된다.

전국 자전거 동호인 및 일반인 2000여 명이  
참가하는 이 대회는 2015년 강원도와 경기도  
의 상생협력 협약 체결로 시작돼 올해 4회를 맞  
았다.

이날 참가자들은 철원 공설운동장을 출발해  
상사리 삼거리~동송지 삼거리~DMZ평화문  
화광장~백마고지역~신탄리역~대광리역~  
자향교차로~연철 공설운동장에 도착하는 56km  
코스를 달린다. 이번 대회는 기존 페레이드 방  
식에서 탈피해 경쟁구간을 신설한 점이 특징

이다.

경쟁구간은 총 22.3km로 강원도 경쟁구간  
12.3km(상사리 삼거리~DMZ평화문화광장)의  
예선을 통과한 참가자 가운데 경기도 경쟁구간  
10km(도신로 삼거리~연천교차로)를 우선 통  
과한 남녀 각 1~5등에게 상이 주어진다. 강원  
도 경쟁구간은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으로 DMZ  
남방한계선을 따라 이어져 이번 대회 코스의 백  
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.

김민재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“DMZ를 공

유하는 강원도와 경기도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 
행사는 평화지역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양 지역  
의 상생 발전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”이라며  
“DMZ가 평화와 번영 그리고 화해의 땅으로 거  
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한편 이날 대회에 앞서 오전 8시 45분부터 사  
전 및 식전 행사로 홍보 동영상 상영과 몸풀기  
체조가 진행되고 오전 9시 40분 개회식이 예정  
돼 있다.

이인모 기자 imlee@donga.com